배차간격 단축, 편리한 환승… 광주버스 획기적 개선

광주시내버스 혁신방안 확정

4년간 안내단말기 560개 추가설치
무장애 정류장 60곳 추가조성키로

광주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광주 시내버스 배차간격이 단계적으로 단축되고 도시철도와의 환승편의성이 강화되는 등 시내버스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들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전문가,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마련한 '광주시내버스 운영체계 혁신방안'을 광주시내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혁신안은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 제고와 이용 편의성 획기적 개선 ▲도시철도와의 환승 편의성 극대화 ▲서비스 개선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 ▲재정절감을 통한 준공영제 효율화란 4대 혁신목표 아래 5대 전략 20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시민 편의시설 확충 및 버스통행 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2022년까지 560개 추가로 설치해 설치율을 50%까지 확대하고, 무장애 정류장도 21년까지 60곳을 추가 조성해 105개로 늘린다.

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 최소화 등 시내버스 운행속도 개선을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현재 8개 노선 47.2㎞에서 2020년까지 3개 구간을 추가 확대해 총 11개 노선에서 운영한다.

원활한 교통흐름의 방해요인인 불법주정차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버스장착형 단속카메라도 매년 10대씩 추가해 2022년에는 총 72대를 운영하며, 교통시설과 차량·사람을 초연결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사업을 통해 도심부 주요도로의 혼잡을 개선하고 안전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내버스 배차간격 조정'을 위해 출·퇴근시간에 차량을 집중 배차하는 탄력배차제를 강화한다. 고장 및 정기점검 등 유사시 대체 투입을 위해 각 회사별로 보유 중인 예비차 투입과 증차 등을 통해 배차기준을 현재 기준에서 매년 10%씩 단축해 급행버스는 5분 간격, 각 생활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버스는 20~30분대에서 12분대로 단축 시킨다. 벽지마을도 교통소외 지역이 없이 대중교통 서비스 수혜를 안정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효천·진월지구 등 도시 확장에 따른 신도심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급행버스 2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해 동서남북 사방축으로 30~40분대에 광주전역을 관통하는 급행버스 운영체계를 완성한다.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환승 편의성 강화'를 위해 역 출구와의 거리가 50m 이상인 정류장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역출구와 근접 위치로 조정되며, 금남로4가역 등 이용객이 많은 역에는 역사내에도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해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성을 도모한다.

미세먼지 발생방지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를 위한 전기시내버스와 저상버스도 전체 시내버스의 40%까지 교체하는 등 버스 선진화 정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더불어 친절교육 강화와 건강관리사업, 친절운전자 인센티브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책을 확대해 운전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익노선 입찰제와 소형버스 도입 등을 통한 재정절감 정책을 추진해 준공영제 운영으로 인한 재정지원 최소화 정책도 추진하게 된다.

이용섭 시장은 행복1번가 및 혁신위원회에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시민 교통 불편민원 및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시내버스 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버스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준공영제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2017 여성친화 플래너 현장학습.

여성친화마을 사업 현장컨설턴트 양성

광주 북구, 생생통통 플래너 모집

광주시 북구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매개체 역할을 할 참신한 인적자원을 모집한다.

광주 북구는 오는 18일까지 관내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휘파람 불 듯 신명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018 생생통통(生生通通) 여성친화 플래너'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생생통통 여성친화 플래너'는 여성친화마을 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현장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각종 정책제안 등을 통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북구에 거주하고 여성친화정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북구청 여성가족과로 전화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강의는 오미란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오는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여성커뮤니티센터(효죽공영주차장 3층)에서 총 8회에 걸쳐 진행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여성친화 플래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다함께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따뜻한 여성친화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

통일교육 활성화 도모, 공감대 확산 나선다

경기도, 전문가 등 50명 워크숍
이철용 교수 초청 독일 사례 강연

경기도는 '민간 통일교육 단체 협력 네트워크 1차 워크숍'을 공무원, 전문가, 통일교육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8월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는 '민간 통일교육 단체 협력 네트워크 2차 워크숍'을 공무원, 전문가, 통일교육 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부터 12일까지 1박 2일간 파주 DMZ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민간 통일교육 기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동대학교 통일연구소가 주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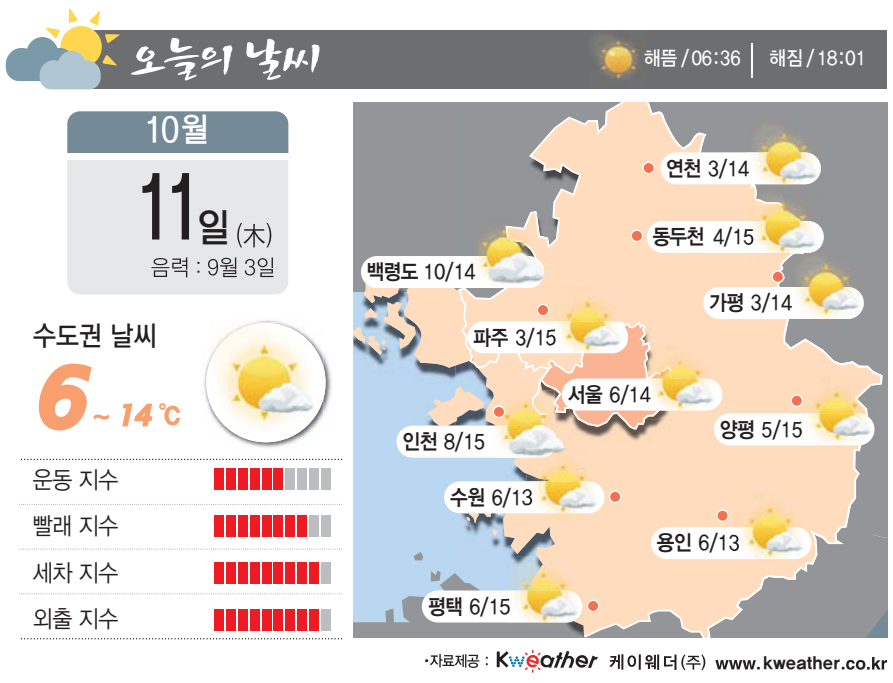
앞서 도는 지난 8월 30일 양주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민간통일교육단체 협력 네트워크 1차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선 이철용 경상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독일 통일네트워크와 단체 활동 사례' 주제 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전환기 민간 통일교육 단체의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토론회를 실시, 민간 통일교육 현장에서의 우수사례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을 공유하고, 통일교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주요 관련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특히 강연에서 제시된 방향과 토론을 통해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도내 민관 통일교육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보는 시간도 갖는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남북출입사무소, 도라산역, 도라전망대 등 파주 DMZ 일원의 통일관련 주요 명소들을 방문, 함께 평화통일을 기원해 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광수 경기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호간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다질 것"이라며 "통일 선도 지자체로서의 경기도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김승열 기자 kimsy@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내일 개막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이하 '노란꽃잔치')에 황금빛 막이 오른다.

노란꽃잔치는 오는 12일 화려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17일간 황룡강변 일대에서 '가고 싶은 옐로우시티! 걷고 싶은 황룡강!'을 슬로건으로 열린다.

황룡강 일대는 황하코스모스, 백일홍, 핑크뮬리가 개화를 시작해 강 주변을 화려하게 물들기 시작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10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모은 노란꽃잔치를 더 화려하고 풍성하게 준비했다.

개막행사는 12일 저녁 공설운동장 주무대에서 열린다. 개막을 기념해 노란꽃잔치의 성공을 기원하는 대박깃발, 소망풍선 날리기를 비롯해 기가수 윙크와 김수찬, 장성 출신 가수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과 불꽃놀이가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노란꽃잔치의 볼거리는 단연 '꽃'이다. 드넓은 황룡강을 따라 햇빛정원, 꽃빛정원, 달빛정원, 별빛정원으로 나눠지고 정원을 구간마다 특색있는 볼거리를 선사한다. 대표 꽃은 황하코스모스과 백일홍, 핑크뮬리, 해바라기다. 황룡강을 따라 곳곳에 핀 황화코스모스 군락은 본격적인 개화가 시작되면 황금빛 물결을 일으키며 화려한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으로 앵무새 특별관과 황룡강 짚라인, 꽃마차를 추천한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우리쌀 가공 체험교육

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지역 쌀소비 실천 리더 양성을 위해 '2018년 우리 쌀 가공 활용 현장체험교육' 교육생을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우리 쌀 소비 실천 리더를 희망하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40명이며, 교육일정은 10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농업현장에서 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쌀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비빔밥에 활용하는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 쉽게 적용 가능함과 동시에 쌀소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